

서부농수산물시장 설 전후 교통정체 적은 까닭은?

1월 26부터 10일간 직원 150여명 차량 임시 주차장 마련 교통혼잡 크게 줄어...상인·이용객 1만여명 편안한 장보기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호남 최대 도매 시장인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교통 지정체는 유난히 적었다.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사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의 차량이 손쉽게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주변 혼잡이 급감, 상인들도 크게 반겼다. 이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한시적으로 시장 근무자들의 승용차, 트럭 등을 다른 곳에 대체주차장을

들어 주차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4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내 법인 4곳, 관리사무소, 농산물검사소 직원 150여명의 차량을 인근 김치타운과 효천1지구 내 임시주차장 부근에 주차하도록 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가능 대수는 1130대로, 하루 이용객 1만2000명, 자

동차 1만대가 오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문제는 명절 연휴 전에는 이용객 수가 최대 3배까지 급증한다는 점이다. 연휴 2~3일 전에는 주변 불법 주차와 대형 트럭이 뒤섞이면서 최악의 교통 정체를 빚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관리사무소는 대책 마련에 들어가 결국 150여 명의 시장 근무자의 승용차와 시장 내 법인 소속 농산물 수송용 대형 트럭 45대를 다른 곳에 주차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득에 들어갔다.

이광용(56) 운영팀장은 "수시로 시장에 드나들어야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대체주차장까지 지정해 계속 설득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첫 조치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시장 관리사무소는 앞으로 매년 설,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시장이 붐비는 주말 등도 여건을 봐서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김현중 소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려드는 이용객들과 자동차를 어떻게 소통시켜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며 "며칠이지만 불편을 감수해준 직원들과 법인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도시공사 광주천 정화활동.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지난 13일 광주천에서 환경정화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공사 임직원 30여 명은 광주천 일대에 버려진 고물 및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광주세계김치축제 총감독 26~28일 3일간 공개모집

광주시는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총감독을 공개모집한다. 총감독은 올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책임 기획, 행사장 공간 구성, 행사 운영 총괄 및 축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외부 협력관계 구축, 대외 홍보 등 업무를 맡는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 미래산업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 김치축제는 광주김치의 전국화를 위해 오는 5월 서울에서 2일간 광주김치 전시·판매·홍보를 위한 '햇김치축제'를, 10월에는 광주에서 3일간 대한민국김치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각각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병내 남구청장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통일진료소 제안.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부문별 모임에서 북측에 통일진료소 개원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걸 남측 민화협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노응래 의원, 임종성 의원, 심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의장과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오늘부터 광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나쁨 수준 예측때 승용차 2부제·도로청소 강화 등 조치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측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광주시는 14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광주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공공·행정 기관 승용차2부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발령 요건으로 시행해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mu\text{g}/\text{m}^3$ 초과 예상 ▲당일 0~16시 주의보(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mu\text{g}/\text{m}^3$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mu\text{g}/\text{m}^3$ 초과 예상 등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화해성사율 85% 지난해 816건 접수 692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성사율을 보였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흡연 301건, 생활누수 93건, 애완견 관련 75건, 주차문제 42건,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305건으로 다양했다. 시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마을 공동체 토론과 조율을 통해 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마을분쟁

해결센터(607-4967)와 5개 자치구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상호 간 대화의사가 있는 경우 주민 화해 지원인으로 구성된 주민화해지원회의에서 갈등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해 성사가 어려운 분쟁은 센터 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가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화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센터와 소통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마을, 아파트, 청소년,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심화-전문가 과정의 주민화해지원인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월 현재까지 359명이 수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하남3지구 주거 정착 사업비 406억 지원 개발사업 이달내 완료...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사용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흑석·장덕동 일대의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월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주거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비 406억원을 2021년까지 광산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재원은 개발사업지구 체비지를 매각해 공사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일부로, 지난 2017년 3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와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 공동편의 시설의 기능을 갖춘 주민복합시설, 생활체육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수영장 포함), 생활기반 사업으로 마을회관, 주차장 등 총 4종 19개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광산구청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과 공사를 시행해 하남3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하남3지구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주민 복리증진과 함께 정주환경의 조기에 정착에 따른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충장로 5가에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일원에 아시아 각국 예술가들의 거점 역할을 할 레지던시(예술가들이 거주하며 창작 활동에 하는 공간)가 들어선다. 동구는 "지난 12일 '충장센터' (가칭) 설 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충장센터는 1970년대 준공된 후 도심 쇠퇴로 오랜 기간 비어있던 충장상가(동구 충장로 5가 95-14번지)를 활용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건물(연면적 1886.4㎡)을 증축하고 1층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내에는 21개 객실과 개방형 무대·카페·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구는 충장센터가 완공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상인, 주민, 국내외 작가 등과 협력해 레지던시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클린콜·주의보...동구, 고강도 청렴대책 추진

광주시 동구가 공직자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 대비 2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가 소폭 상승했다. 구는 청렴문화를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2019 청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클린콜'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 용역, 인·허가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민원인 전화설문을 통해 점검한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명절, 휴가, 인사 등 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를 집중 발령하는 등 공직자 청렴실천 생활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